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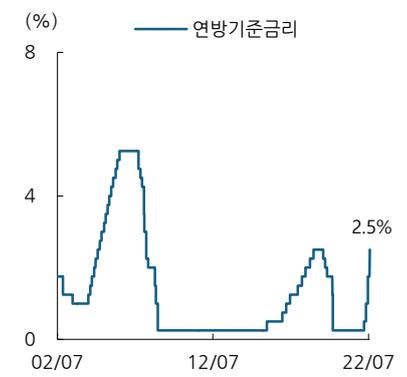
DS Macro



손호성 경제 02-709-2436 / s1340316@d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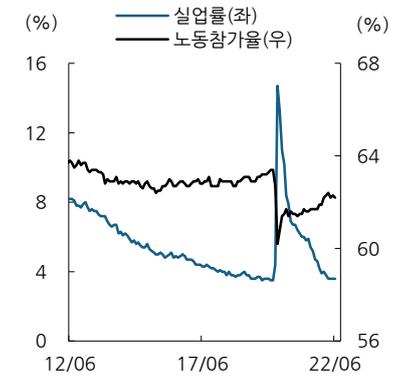
7월 FOMC Review

미국 연방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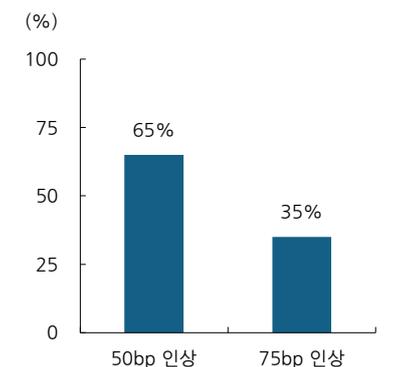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노동시장



자료: NAHB,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ME 9월 FOMC 금리전망



자료: CME FedWatch,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예상에 부합한 75bp 인상. 중립금리 하단에 도달

7월 FOMC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75bp의 연방기금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다. 연방기금 금리가 2.25~2.5%로 인상되며 중립금리 추정치의 하단에 도달했다. 6월 소비자물가가 +9.1% YoY로 높게 발표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파월의 연설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미국의 경제 상태가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적 물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차대조표 축소 또한 예정대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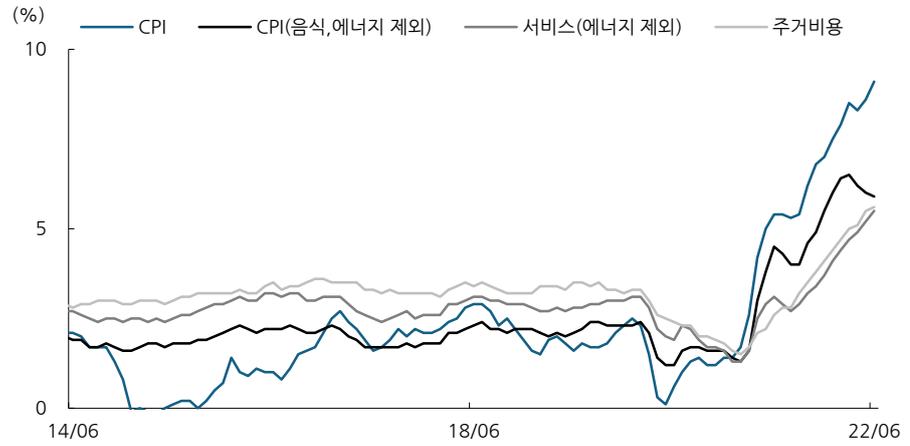
강한 수요와 약한 공급 균형 맞출 것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하며 근 50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과 역대 최대의 일자리로 인한 임금 상승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참여율의 개선세가 약한 점을 강조하며 강한 수요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려했다. 최근 낮아진 실질소득과 타이트한 금융환경으로 주택시장, 기업 투자 등 경제 전방위에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 소비와 생산에서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동의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22년 상반기 동안 270만명 이상의 고용이 발생했고 이는 경기침체 상황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수요둔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의 물가상승과 고용이 관측되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수요 둔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9월 FOMC 75bp 인상 후 점진적 인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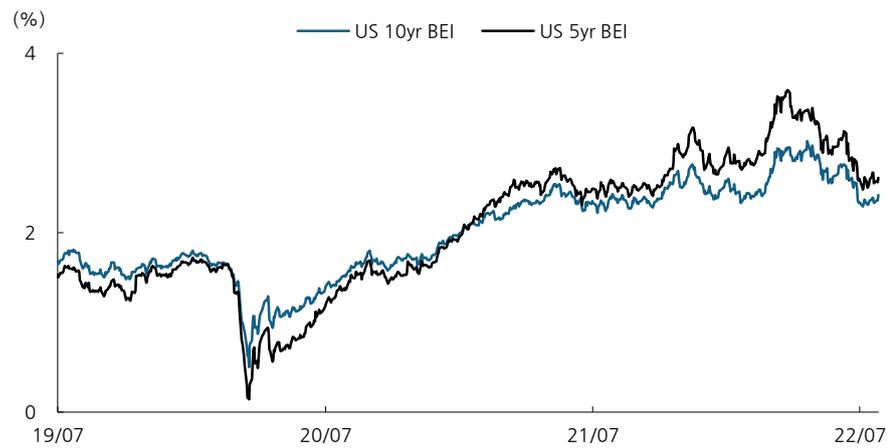
파월 의장은 일반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다음 9월 FOMC에서도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수요 둔화를 위해 중립금리 상단인 3.75~4% 수준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분명한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립금리수준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린 이후 지표들을 확인하며 점진적 정책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림1 미국 CPI 추이



자료: Fred,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Fred,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동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
-